

벤츠 'GLC 300 4매틱' 출시 1시간 만에 완판

창립 20주년 기념 8월 온라인 스페셜 한정 모델 34대 선보여 글로벌 베스트셀링 'GLC' 3세대 모델...8년 만에 완전 변경 도회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스포티하고 강렬한 감성 추구

메르세데스-벤츠의 8월 온라인 스페셜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이 출시 1시간 만에 모두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2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출시한 창립 20주년 기념 8월 온라인 스페셜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매틱 온라인 스페셜' 34대가 1시간 만인 오전 11시 모두 계약됐다.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 4매틱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지난 6월 사전계약 실시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더 뉴 GLC의 온라인 한정판 모델이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특별한 외관 및 인테리어 색상 조합과 이와 조화를 이루는 외장 디자인 옵션인 '나이트 패키지' (Night Package), 더욱 안정적인 고편안한 주행에 돕는 '엔지니어링 패키지' (Engineering Package) 등이 기본으로 적용되면서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게 벤츠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17일 특별한 내외관 색상 조합과 함께 주행 편의성이 강화된 GLC 30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을 34대 한정 판매한다고 공시했다.

이달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지난달 국내 인도가

시작된 더 뉴 GLC의 온라인 한정판 모델이다.

도회적인 고급스러운 품은 '그래파이트 그레이' (Graphite Grey) 색상의 모델 20대와 세련된 분위기의 '마누팩투어 다이아몬드 화이트 브라이트' (MANUFAKTUR Diamond White Bright) 모델 14대다.

그래파이트 그레이 모델은 실내에 네바 그레이 및 블랙의 투톤 컬러가 적용돼 모던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마누팩투어 다이아몬드 화이트 브라이트는 외장 색상과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는 시에나 브라운 및 블랙 컬러의 인테리어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는 평가다.

외관에는 나이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됐는데, 라디에이터 그릴과 루브르, AMG 프론트 에이프린, 사이드 미러 하우징, 루프레일, 리어 에이프린 및 디퓨저가 검은 색상으로 마감돼 스포티하고 강렬한 감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소장 욕구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스페셜 모델에는 최대 4.5도의 조향각으로 민첩한 코너링을 지원하고 고속 주행, 빠른 차선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돕고, 거친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장하는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포함된 엔지니어링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18일 선보인 'GLC 300 4매틱 온라인 스페셜'의 '마누팩투어 다이아몬드 화이트 브라이트' 모델.

패키지가 적용됐다.

더 뉴 GLC는 메르세데스-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GLC의 3세대 모델로, 8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쳐 지난 6월 국내에 출시됐다.

더 뉴 GLC는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더욱 여유

로워진 실내 공간,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주행 성능, 최신 주행보조 시스템 및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탑재돼 럭셔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고객 성원 보답의 의미로 매월 온라인

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더 뉴 GLC를 포함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EQS SUV, E-클래스 카브리올레 등 총 8개의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출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도심·아웃도어 달린다...현대차 '뉴 싼타페' 출시

현대자동차는 도심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아우르는 대표 중형 SUV '디 올 뉴 싼타페' (사진)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는 새로 개발된 양방향 멀티 콘솔이 탑재됐다. 양방향 멀티 콘솔은 암레스트 수납 공간과 트레이를 1열이나 2열 탑승자가 위치한 방향으로 각각 열고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폰 듀얼 무선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2대를 무선으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1열 동승석 글로브 박스 상단에 UV-C 자외선 살균 멀티 트레이를 장착해 자주 사용하는 휴대 물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센터 미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빌트인 캠 2

▲220V 인버터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키 2 ▲어드밴스드 후석승객알림(ROA) 시스템 ▲USB C타입 충전기(최대 27W) 등 다채로운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직접식 감지(HOD, Hands On Detection) 스티어링 휠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했다.

디 올 뉴 싼타페의 판매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모델 ▲익스클루시브 3546만원 ▲프레스티지 3794만원 ▲캘리그래피 4373만원이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세계최대 적용 전) ▲익스클루시브 4031만원 ▲프레스티지 4279만원 ▲캘리그래피 4764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판매 1위 사수한다...기아 쏘렌토 본격 판매

기아는 4세대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4세대 쏘렌토는 지난 2020년 출시 후 매년 국내에서 6만대 이상 판매되며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쏘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은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지트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에 기반한 세련되고 강인한 외관과 함께 개방감과 편의성을 겸비한 실내를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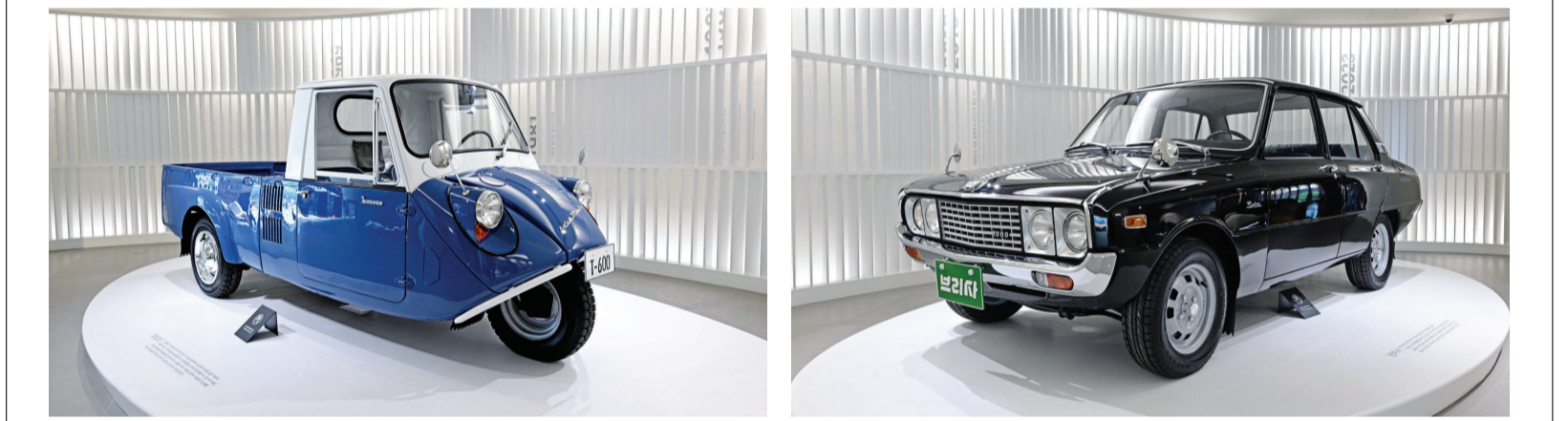
기아는 쏘렌토에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 하이패스(hi-pass) ▲스트리밍 플러스 ▲빌트인 캠 2 ▲기아 디지털 키 2 등 첨단사양을 적용했다. 이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차량-측방 접근차-추월시 대향차-회피 조향 보조 기능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적용했다.

또 탑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해 ▲10 에어백 시스템 ▲프로젝션 타입 후진 가이드 램프 등 안전사양과 ▲디지털 센터 미러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운전자 예르고 모션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더했다.

쏘렌토는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가지 파워트레인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트림 및 ▲디자인 특화 트림 그레비티로 출시된다.

쏘렌토의 트림별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3506만~4193만원 ▲2.2 디젤 3679만~4366만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WD 4161만~4831만원이다.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친환경차 세계최대 후 기준 3786만~4455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T-600'

'브리스'

삼발이 'T-600'·택시운전사 송강호차 '브리스' 복원

기아, 내년 5월까지 브랜드 체험공간에 차량 전시

기아가 'T-600'과 '브리스' 복원 차량을 공개한다.

기아는 21일 서울 압구정 소재 브랜드 체험 공간 'Kia360'에서 내년 5월까지 'T-600'과 '브리스' 복원 차량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1944년 경성정공으로 시작해 1952년 기아산업, 1990년 기아자동차, 2021년 기아로 변화를 거듭해온 기아는 기아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를 제작, 삼륜차와 트럭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만들어왔다.

이동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브랜드의 본질로 삼고 있는 기아는 'Movement with People'을 콘셉트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아의 움직임(Movement)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고객(People)과 함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전기차 및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urpose Built Vehicle)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움직임의 여정을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시 공간에는 기아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된 삼륜 자동차 'T-600', 기아 최초의 후륜구동 승용차 브리스 등 기아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두 차량과 함께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이 전시된다.

기아는 연구소에 보관돼 있던 T-600과 브리스를 활용, 두 차량의 과거 사진과 출시 카탈로그 등을 참고해 내·외장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T-600은 1969년 일본 동양공업(현 마쓰다)과 기술 협력을 통해 생산한 삼륜차다. 차체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골목길이나 산동네에서 연탄, 쌀 배달 등에 활용됐으며, 세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삼발이'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T-600은 기아가 자전거 생산에서 나아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모델로, 국내 자동차 산업사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여 평가받아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1974년 출시된 승용차 브리스는 마쓰다 플랫폼

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출시 2년 만인 1976년에 약 90%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모델이다.

브리스는 과거 석유 파동 당시 우수한 경제성을 토대로 인기를 얻었으며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주인공이 운행한 택시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기아는 방문객들이 기아 헤리티지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디지털 콘텐츠도 마련했다. 전시장 입구에는 고객들의 일상 속 기아의 다양한 순간을 담은 이미지가 상영되며, 스포티지, K5, EV9 등 역대 기아 대표 모델들을 연결해 만든 영상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기아 헤리티지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며, 도슨트 투어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79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객과 함께해 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라며 "기아의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헤리티지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730마력 레이싱카 XCMtrema

마세라티 세계 첫 공개

마세라티가 730마력의 레이싱카 'XCMtrema' (사진)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최근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더 퀘일' (The Quail)에서 새로운 트랙 모델 'MCXtrema'를 공개했다.

더 퀘일은 매년 여름 전 세계의 자동차 애호가들이 몬터레이반도에 모여 뛰어난 자동차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축하하는 독특한 무대다.

'MCXtrema'는 트랙 전용으로 제작, 진정한 '야수'와 같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마세라티는 설



명했다.

'MCXtrema'는 73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 독창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마세라티의 한정판 슈퍼 스포츠카다. 전 세계 62대만 한정 생산된다.

모데나에 기반을 둔 브랜드 중 가장 강력한 트랙카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모든 면에서 대담하고 독보적인 차량으로, 순수주의 수집가와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